지역 육계 유통질서 개혁에 앞장 설
양계인 모두의 〈주〉柳盛브로일러

▲ 류종래 사장

닭고기유통이 생닭에서 도계육으로 전환되어 이제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는 지난 1월 1일부터 전면 도계품유통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현대식시설의 도계장들이 본격가동되기 시작했다.

본지는 지난호에 충남 금산의 대정식품을 소개한데 이어 대구시에 순수한 양계인에 의해 건립된 현대식도계장 〈주〉柳盛브로일러를 찾아보았다.

〈취 재 부〉

대구직할시 서구 이곡동 692-1 1,800평 대지(연건평 400평)위에 7억여원(축산 진흥기금 3억원 포함)을 들여 완공된 유성브로일러는 네덜란드 메인(Meyn)사의 현대식 도계시설을 도입, 83년 6월부터 착공해 지난 10월말에 준공을 마치고 11월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가 현재는 시간당 3천 5백 수 처리(8시간 가동기준 1일 2만 8천수 처리능력)를 할 수 있으나 비수기 물량 수급상 일일 7,000~8,000수 정도만 도계하고 있다.

도계과정은 전과정 콘베어시스템으로 샤클(shackle)에 매달린 닭은 전기쇼크기를 통과 하면서 240V의 전압에 의해 순간 질식되어 킬러(Killer)에 의해 1분 30초간 방혈이 되고 항상 59℃~60℃를 유지하고 있는 탕적기에 1분동안 탕침된다. 이어서 탈모기(좌우 각각 32개의 디스크)를 거쳐 탈모가 되면 검사과정을 지나 수동식으로 항문이 절개되고, 자동내장 적출기에 의해 내장이 제거되면서 세척기에 의해 깨끗한 닭으로 처리된다.

도계된 닭은 다시 스크류형의 냉각조로 옮겨져 1~3℃로 온도를 낮추어 냉장고에 비축되거나 시중으로 출하된다.

상기한 도계시설 외에 부대시설로 계류장, 소독시설, 예냉실, -40℃의 급속냉동실, 저장실(-20℃), 폐수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소독시설은 도계장에서 닭을 부리고 다시 농장으로 가기전에 오염된 병균이 농장에 옮겨지지 않도록 의무적으로 운반 차량과 어리장 등을 세척 및 소독하게 되는데 이는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류종래사장의 양계질병에 대한 남다른 인식과 특별한 배려로 도계장측에서 실시케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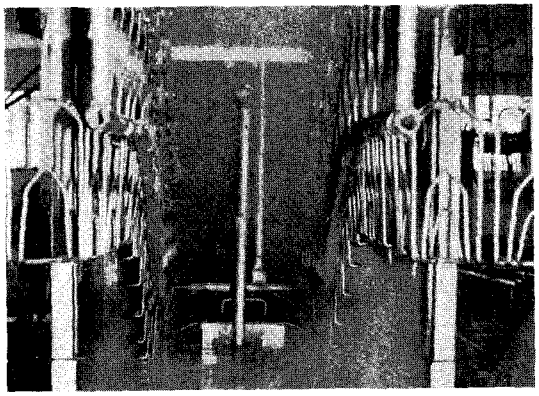
1일 200톤(8시간 기준)을 처리할 수 있는 폐수처리시설은 물리화학적 방법과 생물학적 방법을 동원해 거의 완전에 가깝게 걸러내는데 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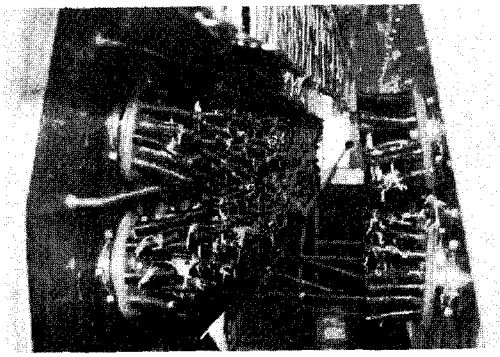
수는 처리장에 들어가기전 4개의 스크린에 의해 털·육편 등 입자가 큰 불순물이 제거되고, 기계마모·손상방지를 위해 먼지, 가는육편 등을 가라앉히고 폐수의 수량과 수질의 균일화를 도모키 위한 침사지에서 일정시간 저류된다. 다시 폭기조에 들어가 밑에서 공기를 불어넣어 교반되면, 다시 침전조로 옮겨서 부유물을 침전시킨 후(2회 반복) 소독조를 거쳐 탈색 및 소독을 마치게 되면 찌꺼기 등을 고체화 시켜(여과흡착)방류를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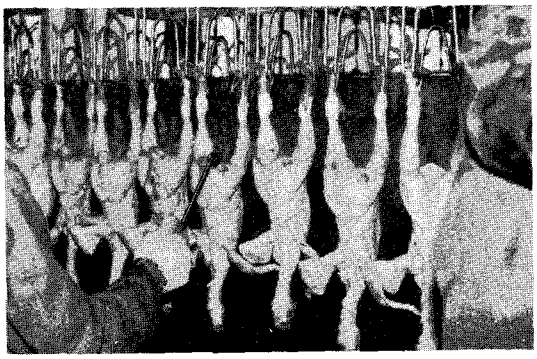
모든 공정이 신속하게 처리되며 도계품의 상품성이 높아 시장에서 많은 인기가 있으나 현재 대구일원의 브로일러 소비량이 성수기 5만수, 비수기 3만수 정도로 소비시장이 작은데다 아직 일부 밀도계가 성행하고, 가격기복이 심해 현재 전량 위탁도계만 하기 때문에 많은 애로가 없지않다. 더구나 대구시내에 S·D도계장 등의 능력을 합하면 도계능력은 총8만수(8시간 기준)정도가 되는 시설과잉으로 이들이 합심해 소비확대를 효율적으로 증대시켜 나가야만 하는 것이 큰 과제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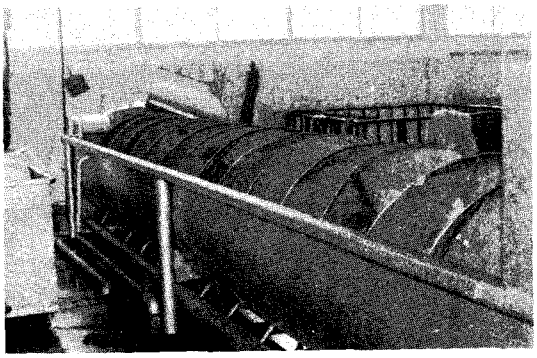
지역적인 특성으로 노계육소비가 많고 생산자수 보다 수집반출상(소매상 기능도 담당) 숫자가 워낙 많아 1개 농장에 출입하는 닭상인이 5~10명 정도 되다보니 2천수 출하하는데 일주일 이상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다. 노계육소비를 브로일러육소비로 전환시키고 도계유통이 체계화되면서 위탁도계에서 계열사육방식에 의한 도계장 위주의 닭고기유통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의 냉장 시설로는 여름철성수기 물량공급에 문제가 있어 시설을 보완할 예정으로 서서히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뜻을 밝히는 류종래사장은 육계 생산자들에게 닭을 잘 길러서 소비자들에게 위생적이고 값싼 닭고기를 공급한다는 의무감을 갖고 생업에 임할 때 육계 사업의 성공여부도 달렸다고 힘주어 말하며 근간 육계업자가 보다 나은 육계사육에 힘쓰기 보다는 채란업으로, 양돈업 등으로 업종을 바꾸는 일이 많다고 지적하고 먼저 육계사업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창의적으로 대처해 비닐하우스를 완전계사로 바꾸는 등 천직으로의 사명감을 갖고 꾸준히 밀고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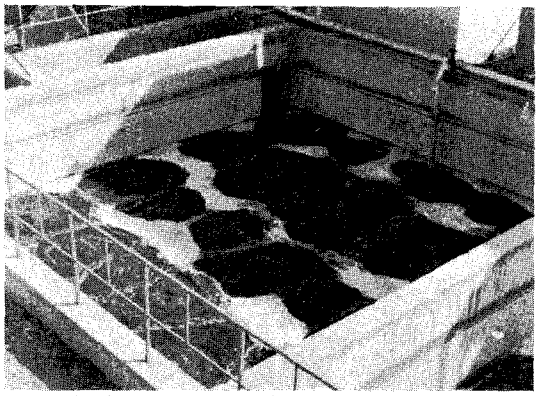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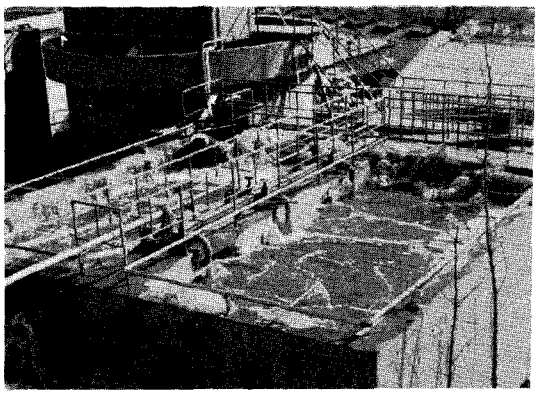




▲ 위로부터
탕적기, 탈모기, 검사과정, 냉각조시설



▲ 폐수처리시설(폭기조)



▲ 폐수처리시설(소독조)

앞으로의 도계사업 발전계획을 묻는 기자에게 류종래사장은「지역 유통질서를 개혁하는데 역점을 두고 먼저 양계관련인 모두가 힘을 합치는데 힘을 쏟아 공생, 공영을 위해 경쟁보다는 대화로 모두 함께 사는 방향으로 무리하지 않고 능력 껏 서서히 발전시켜 나갈 뜻」을 전한다.

80년도에 생산자들의 힘을 모아 도계장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여러가지 여건아 불비되어, 82년부터 개인의 힘으로라도 꼭 해야한다는 생각에 사업을 구상, 83년도에 결실을 본이 도계장은 모든 생산자와 양계인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도계장 허가 외에도 각종 축산물 가공, 포장 허가까지 득한 주식회사로 구성하여 생산자 유통상인 등 관련업자 모두에게 주식을 개방해 내것이 아닌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갈 것이란다.

1933년 9월 30일 경북 달성군 성서면에서 출생한 류종래사장은 약관 31세에 대구축협 이사직을 거쳐 1966년 33세에 대구축협 조합장의 중책을 맡아, 10년 동안을 조합장으로 지내면서 청렴결백과 뚜렷한 개성으로 강한 추진력을 발휘, 당시 복잡한 축협을 전국 제1의 조합으로 성장시켜 조합원의 계열화 출하조직의 육성, 물량체화시 농수산부와 협조해 닭고기 수매비축, 71년도에 포항종합식품과 협조해 홍콩에 인삼을 가미한 닭고기 5만수를 수출, 현대식 사료공장 건립, 가금처리시설, 축산물 직매장 설치, 냉동보관시설 설비, 계란직매장 설치 등 불타는 의욕과 투지로 많은 성과를 올리고 72년에는 농협중앙회 감사직을 맡은 바 있다.

이와같은 많은 경험과 불굴의 의지와 강한 추진력으로 대구지역의 효율적인 육계유통 뿐만 아니라 한계에 봉착해 있는 국내 육계산업에 큰 활력소가 될 것을 류종래사장에게 기대해 본다.

〈斗〉

일본 양계산업 전시회

제14회 全 일본 양계산업전시회가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일본양계협회 주최로 열린다.

이 전시회에는 양계산물, 유통시설, 기계기구, 사료, 약품 등이 전시되며 각종 세미나를 개최한다. 또 전 전시기간을 통하여 계란 및 계육에 대한 소비선전을 겸할 예정이며, 아울러 자료집으로 「일본의 양계산업」제14집을 발간, 배부할 계획으로 있다.

전시회 개최장소 및 일정은 다음과 같다.

〈장소〉 靜岡산업관 전시장·회의실
(靜岡市 曲金 3-1-10)

〈일정〉

- 양계산업전 : 3.28~30
- 전일본양계대회 : 3.29
- 양계강연회 : 3.28~30

전시회 참가희망자는 2월 25일까지 본회(752-3571)로 신청하기 바란다.